테살로니카 1,2 서(성서 36 주간)

1. **테살로니카의 위치** : 오늘날 그리스 북부의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이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매부인 갓산드로 장군이 기원전 315 년경에 건설하여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라 불렀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를 합병한 후 이 도시를 마케도니아주의 수도로 삼았으며 테살로니카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매우 번창한 도시이다. 이 도시에는 로마 관리와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으며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였다.

2. **테살로니카 교회 설립** : 제 2 차 전도여행때(50-52 년경) 바오로 사도는 실바노 및 티모테오와 함께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건너와 필리피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충성스러운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얼마 후 박해를 받아 추방되었다(사도 16,11-40; 1 테살 2,2) 그래서 바오로 일행은 테살로니카로 가서 우선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함. 그러나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여 바오로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전도를 하였다. 바오로는 거기서 천막 짜는 일을 하며(1 테살 2,9; 사도 18,3) 많은 이방인들을 회개시켜 굳건한 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기본적인 교리만 배웠을 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다.(1 테살 3,10) 그런데 얼마 안가서 유대인들의 책동으로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에서도 추방되었다(사도 17,1-10). 추방된 바오로는 박해받는 새 교우들의 신상을 걱정했고 그 박해운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게 몹시 분개했다(1 테살 2,15-16)

3. 테살로니카서의 집필 동기
   - **첫째 편지** : 바오르는 테살로니카를 떠난 후 차례로 베레아, 아테네, 코린토에서 전도하였다. 바오로가 아테네에 있을 때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바노와 티모테오가 아테네로 내려오자 바오로는 티모테오를 테살로니카 교회로 올려 보내고(1 테살 3,1-2) 자신은 실바노를 데리고 89Km 떨어진 코린토로 내려와 활발히 전도하였다.
     티모테오는 테살로니카 교회에서 코린토로 내려와 테살로니카 교회실정을 보고했다.
   - **둘째 편지** : 1 세기 테살로니카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는 두 가지 물의가 일어났다. 그것은 박해와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2 테살 1,4)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그릇된 가르침에 이끌려(2 테살 2,2)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은 하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2 테살 3,11). 필자는 바로 이런 테살로니카 신자들의 생각과 생활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바로 잡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둘째 편지를 쓰게 되었다.

4. 테살로니타서의 집필연대

바오로가 2차 전도여행 중(50-52)에 코린토에서 1년반 동안 활동했다. 그는 테살로니카 첫째편지를 51년경에 둘째 편지를 같은 해 혹은 52년경에 썼을 것이다. 이 두 편지는 바오로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씌여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대략 20년 밖에 안 된 무렵에 씌어졌으니 신약성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작성된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 두 편지는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공적인 문서로서 매우 귀중한 것이다.

5. 첫째 편지의 내용과 가르침

- 제1부 : 사도들과 테살로니카인들의 관계(1,2-3,13)

1)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1,2-2,16)
2) 신도들을 만나려는 사도적 희망과 티모테오의 사명(2,17-3,10)
3) 마지막 축원(3,11-13)

- 제2부 : '주 예수 안에서' 한 사도적 훈화(4,1-5,24)

1)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기본적 덕행인 순결과 사랑(4,1-12)
2) 종말론적 기다림의 두 측면(4,13-5,11)
3)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유익한 충고(5,12-22)

- 바오로 사도가 테살로니카 신도들에게 제시한 지침들은 네 부류로 나뉨.
  (1)봉사자들에 대한 존경(5,12-13ㄱ)
  (2)평화로운 공동체 생활(5,13ㄴ-15)
  (3)하느님의 뜻에 따른 기쁨, 기도와 감사의 생활(5,16-18)
  (4)영성생활에 대한 지침(5,19-22)
- 영성생활에 대한 지침(5,19-22)
  5,19 : 영을 끄지 말고
  5,20 :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시오
  5,21 : 모든 것을 살펴보고 좋은 것을 지키시오
  5,22 : 갖가지 종류의 악을 멀리 하시오.
  모든 예언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된다. 영의 발언들은 공동체를 건설하고 사랑으로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느님은 질서와 조화와 평화의 창조주이시 때문이다.

4) 마지막 축원(5,23-24)
5) 편지 낭독과 마지막 인사(5,25-28)

6. 둘째 편지의 내용과 가르침

테살로니카 둘째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는 유대교 묵시문학을 원용하여 세말에 나타날 그 전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주님의 내림(2,1-3,5)

(1) 사탄이 이미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신도들이 박해를 당한다. 죄악이 점점 심해져서 거짓과 불의가 만연하게 되고 특히 위험한 것은 거짓을 참으로, 불의를 정의로 오인케 하는 속임수로 말미암은 인간의 착각을 들고 있다(2 테살 2,9-12)

(2) 배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혹은 '무법자'가 등장할 것이다. 배교의 개념은 묵시문학과 복음서에도 나타난다. 바오로는 배교를 무법자의 활동과 동일시 한 것 같다.

(3) '무법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혹은 무엇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데(2 테살 2,6-7), 그 정체가 무엇인지 또는 누구인지 추론하기는 어렵다.

(4) 무법자가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내림하시어 그를 멸할 것입니다(2 테살 2,8) 따라서 주님의 날이 이미 왔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한 테살로니카 신도들에게 힘주어 말한다.

2) 질서와 근면에 관한 훈계(3,6-15)